



포커스

국민결집(結集)을 통한 통일준비의 지속



▶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포커스

- ① 국민결집을 통한 통일준비의 지속
- ② 한반도 안보환경과 통일기반구축



통일 돋보기

북한의 기후, 한반도의 봄꽃을 기다리며...



Today 남북

로도 못지않네, 북한의 '인민복권'

▶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 마음 속에 '장벽' 만들지 않는 게 바로 통일준비



통일 Talk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어요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생활언저리' 탈출, 남한에서도 또로로하게!

▶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



느낌 있는 여행

떠났던 봄이 돌아오던 날 그 섬, 보길도



통일 웹툰

자고로 몸 까기는 아외가 효과적!



통일 레시피

아들아들한 녹두묵에 쇠고기로 감칠맛 낸, 녹두묵채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지난호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신청



구독해지



웹진개선건의

<p>통일 플러스</p> <p>포커스 ① 포커스 ② 통일 돋보기</p>	<p>통일 스토리</p> <p>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남북공감</p> <p>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p>민주평통 365</p> <p>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NUAC 뉴스</p>	<p>즐거운 통일</p> <p>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심표, 느낌표</p> <p>이벤트 당선작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국민결집(結集)을 통한 통일준비의 지속

새해 벽두부터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지역과 국제사회에 안보 불안감이 증가되는 등 '엄중한 위기' 상황이 도래하였다. 그동안 통일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알차게 통일준비를 지속해왔던 우리의 마음은 또 한 번의 공허함 속에서 차가운 겨울을 넘기고 새로운 봄을 맞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행태를 생각하면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 보유국' 목표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핵을 보유한 '핵 강성대국'을 주요한 정치적 치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수시로 언급해 왔다. 북한의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행태는 주로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에는 내부적인 불안과 경제·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정상적 행동을 바로 잡고,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처럼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사회에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곧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길이며, 미래 국가건설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절대 소홀히 하거나 늦출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결집이란 개별화된 개인과 집단을 서로 협력하게 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성을 말한다. 국민결집의 정도에 따라 이의 확장개념인 통일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리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이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결집'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국민결집이란 개별화된 개인과 집단을 서로 협력하게 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성을 말한다. 국민결집의 정도에 따라 이의 확장개념인 통일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리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이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결집'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이익관계와 더불어 수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결집을 위한 행동이나 실행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으며, 오히려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은 사회 및 국가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내부갈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정보비용과 자원비용이 부과되며, 많은 차원의 사회현상을 다른 국면과 조화시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통일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더불어 정부와 국민이라는 각각의 구조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지도자나 어느 집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독일의 경험을 비춰볼 때 우리는 지속적인 통일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통일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을 포기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주지해야 한다. 정책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추진여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해 갈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이며, '신뢰프로세스 정책' 또한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에서 신뢰정책은 일종의 균형정책이며, 균형정책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 더욱 단호하게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말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존속해 나가야 하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쟁방지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유화적인 정책보다는 제재와 압박 중심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면 역으로 안보중심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그만큼 축소될 소지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2016년의 상황은 2013년의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3년 초, 우리사회에는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희망적 관측이 주류를 형성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전인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런 기대감은 크게 줄어들었고, 우리 사회에는 안보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3가지 국정목표(행복한 통일, 신뢰외교, 튼튼한 안보)는 '튼튼한 안보'쪽에 방점이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단기적으로 억지력과 안보가 강조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는 중·장기 과제로 배치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을 향해 핵 포기 결단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언급과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그 점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2016년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핵실험에 대한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에 따른 조치들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최소한 이런 기반 위에서만 잉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2016년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핵실험에 대한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에 따른 조치들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최소한 이런 기반 위에서만 잉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의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국면전환을 위한 대내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정체가 지속될 경우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며, 이때 북한의 출구전략은 한반도 긴장고조의 또 다른 강경한 조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경우 핵무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역으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하게 된다면 수령체제 또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잇단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통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통일준비에 대한 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국가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일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천여년동안 국가 없이 방랑하며 살았던 유대인은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며, 자신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우리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결집과 사회통합을 새삼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그러나 한 겨울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상상의 답안지가 휴지통에 버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통일한국의 가슴벅찬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계속 인내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하는 영역이다. 통일한국에 대해 기대를 버리지 않고, 스스로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하기'와 '알아가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시점이다.

〈글. 안제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서, 2월 7일 광명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민감도를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논의까지 제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기존 정책만으로는 북한 핵과 투발수단 능력의 고도화도,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북한도발의 '악순환'도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북한 핵, 핵의 투발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SLBM의 시험발사 문제는 더 이상 '북한 핵문제'로 제한시키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북한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대북정책과 제재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되었던 점 중의 하나는, 기존 대북정책 속에 우리가 갖고 있던 '북한의 전제(assumption)와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태와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즉, 남북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확산되고 증대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는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협력의 평화'는 '북한 행동의 변화'를 전제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햇볕정책 이후 지금까지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안정과 평화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시기에도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반복되고 고도화되면서 그 주기도 짧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이나 온건책 모두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앞으로 추진할 대북정책도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행동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보다는, '북한의 행동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이나 온건책 모두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평가는 북한의 행동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 평가이므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행동변화를 하지 않은 비용을 엄청나게 높임으로써 결국 행동변화를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행동변화 가능성을 전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강압정책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이나 온건책 모두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앞으로 추진할 대북정책도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행동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보다는, '북한의 행동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이나 온건책 모두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평가는 북한의 행동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 평가이므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행동변화를 하지 않은 비용을 엄청나게 높임으로써 결국 행동변화를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행동변화 가능성을 전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강압정책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은 북한을 둘러싸고 대북 강경제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와 제도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대북압박 동참을 유인하고, 나아가 유엔안보리 제재수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와 고립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고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시켜 주겠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남북 간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3가지 방향에서 대북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대북압박 동참을 유인하고, 나아가 유엔안보리 제재수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이익을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러 애민정치 행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만 부과하는지를 인식토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와 고립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시켜 주겠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북제재

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중국이라는 큰 대문이 열려있었기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차단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북한이 외치는 '자주'와 '자강' 또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은닉해 온 자금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과 거래의 실질적 차단을 통해 북한 스스로가 얼마나 제재에 취약한 지를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된 대북제재법은 중국에게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국은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에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리비아, 이란, 미얀마, 쿠바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립의 장기화는 어떠한 독재체제도 견딜 수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에게 정책으로 주시시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남북 간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점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세적인 전력 능력 강화와 운용,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인 조기구축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사드(THAAD)배치 등을 통한 다층 방어력 강화는 북한에게 물리적 취약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를 좌절시키며, 북한군의 전력효과를 무능화시키겠다는 안보정책 강화다.

이러한 3가지 방향은 통일담론의 약화가 아니라, 통일준비의 필요성 증대와 통일 공감대 확산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대북제재의 압박이 강화된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보다 빨리 이끌어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대북압박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다면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나아가 통일의 수순이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북한의 위협과 잘못된 행동에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단호함 이면에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우리의 열망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강력한 안보를 통한 '힘의 평화'가 궁극적으로는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로 나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글.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사진. 청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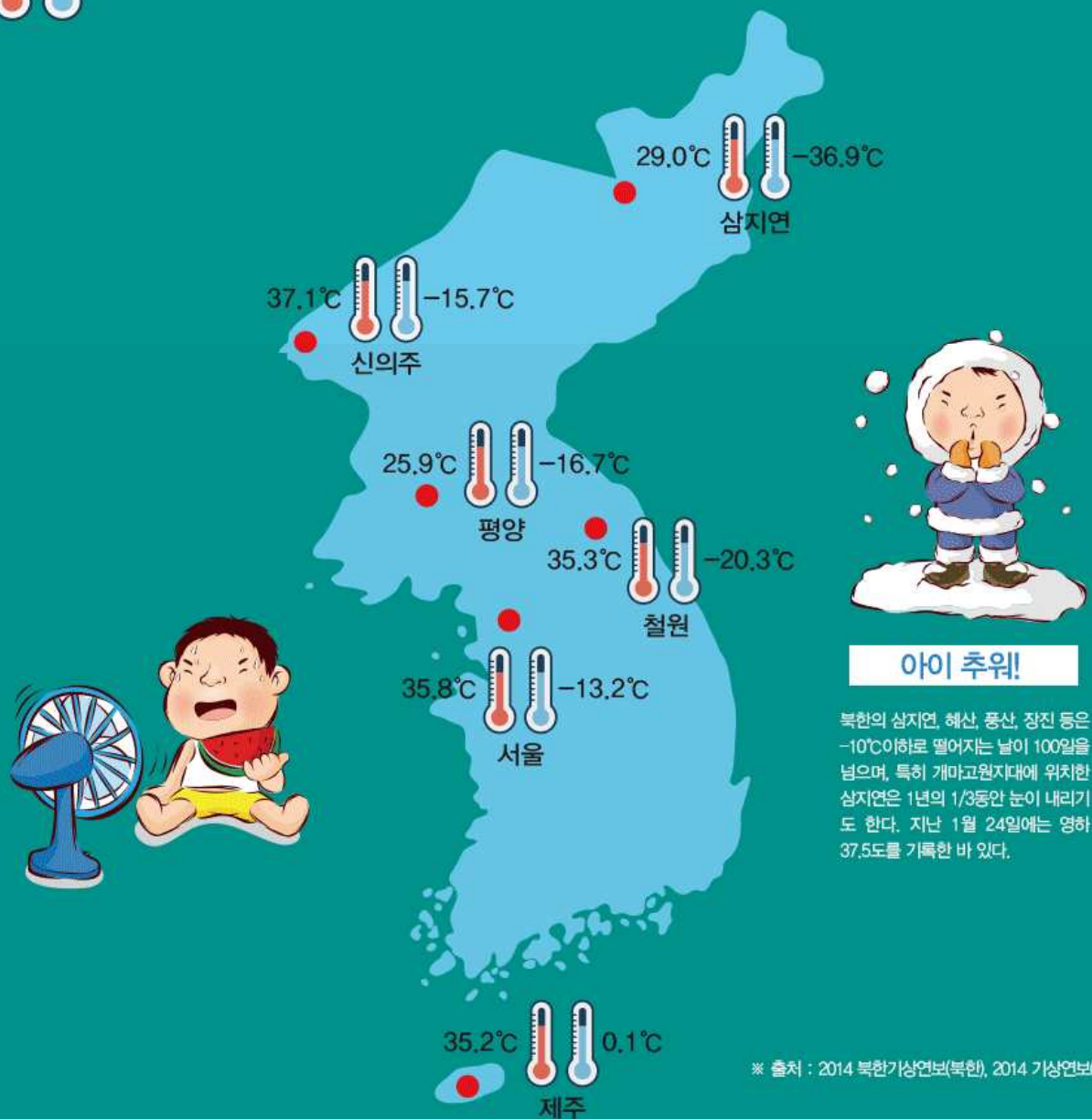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기후, 한반도의 봄꽃을 기다리며...

올해는 3월 중순부터 한반도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개화를 시작할 전망이다. 제주도와 영호남을 지나 봄꽃들은 북으로 북으로 잔걸음으로 북상하며 필 텐데 북한의 봄꽃 개화 시기는 안타깝게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번 호에서는 남북한의 기후를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 보았다.



남북한 최고 추운 날, 최고 더운 날



아이 추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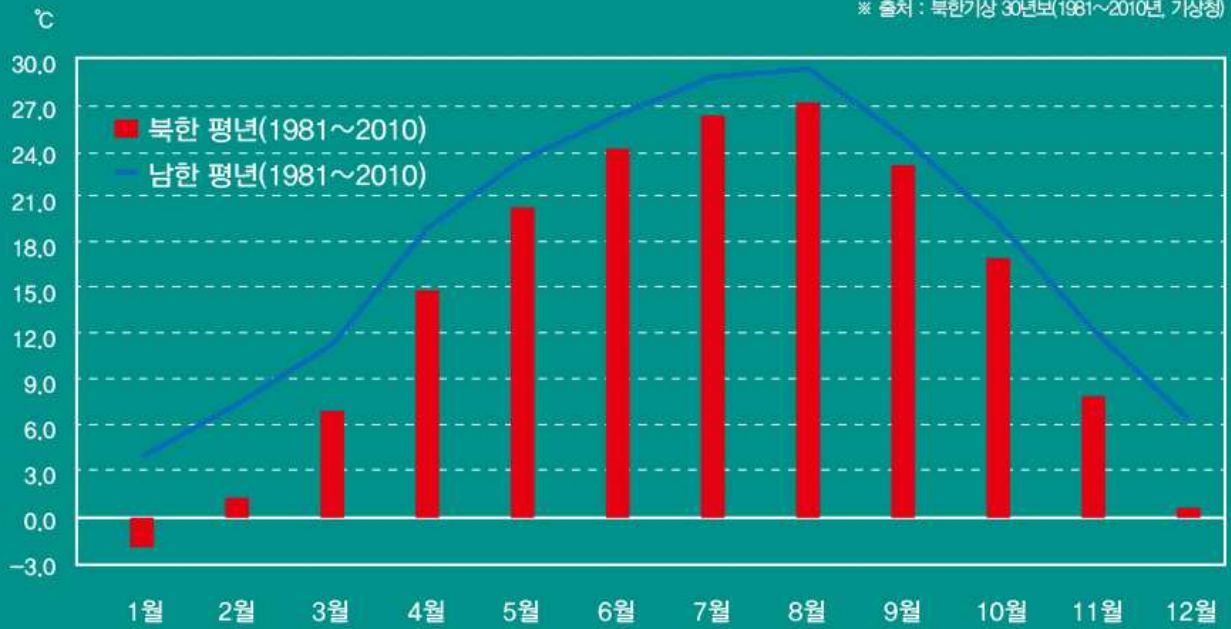
북한의 삼지연, 해산, 풍산, 장진 등은 -10°C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100일을 넘으며, 특히 개마고원지대에 위치한 삼지연은 1년의 1/3동안 눈이 내리기도 한다. 지난 1월 24일에는 영하 37.5도를 기록한 바 있다.

* 출처 : 2014 북한기상연보(북한), 2014 기상연보(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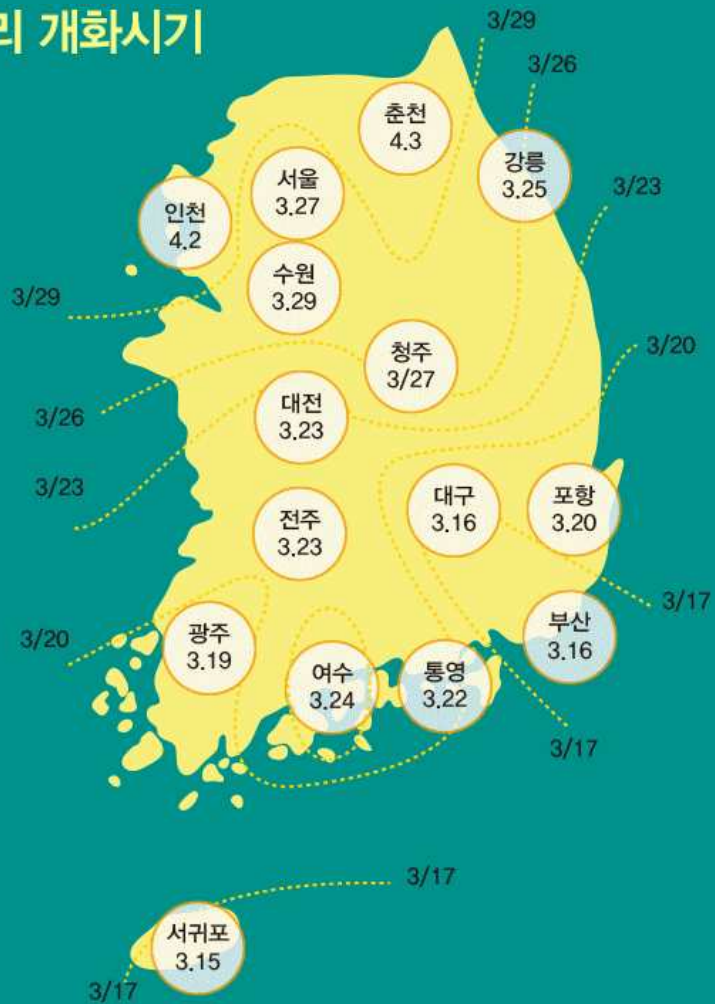


남북한 월별 평균기온(30년 평균)

※ 출처 : 북한기상 30년보(1981~2010년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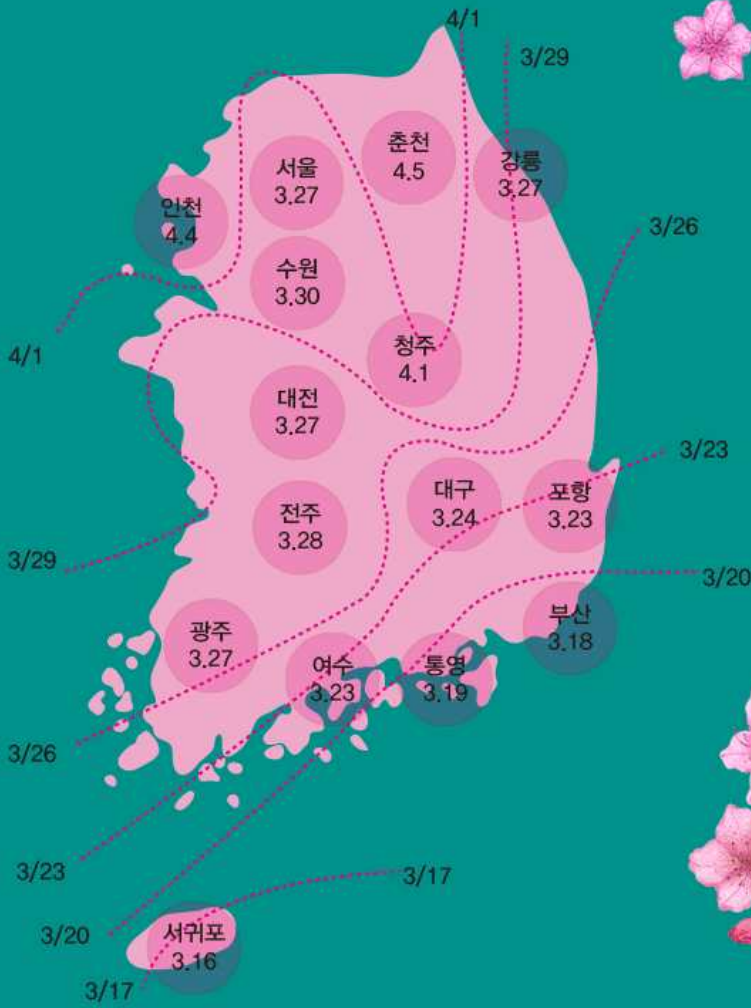


2016년 개나리 개화시기





2016년 진달래 개화시기



위도가 같을 경우 개나리와 진달래는
고도가 100m 높아짐에 따라 평균 2일 정도 늦게 개화하며,
봄꽃은 1일에 약 30km 정도 북상한다.
출처 : 웨더아이





우리 마음 속에 '장벽' 만들지 않는 게 바로 통일준비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 학과장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한국학과 학과장을 역임하며 독일인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온 이은정 교수(51). 특히 분단시절인 1984년부터 독일이 통일되고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경험을 한반도 통일에 접목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한국과 독일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이미륵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이은정 교수에게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 가능한' 통일준비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독일 학계에서도 주목 받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한국학 연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자가 설립된 지 이제 십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현재는 전공 학부생의 수가 250여 명, 매년 70명이 넘는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어요. 한국학과에서는 주로 '사회과학적인 한국연구'를 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입문부터 한국사상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죠. 자유대학교의 지역학연구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 학과는 다른 학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어요. 이 가운데 '독일통일 연구결과의 한반도 적용을 위한 현장실험 프로젝트'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현장적용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독일 학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 연구결과를 국제학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한국전쟁'만 알던 독일인, 이젠 '경제발전'이나 '시민사회운동' 등으로 한국을 이해하다

한국에 대한 독일인들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1980년대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전쟁'이나 '한국인 간호사'를 안다는 대답이 주를 이뤘는데 이젠 삼성과 현대가 한국의 기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늘었어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매년 '독일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교사연수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경험 또는 환경문제와 시민사회운동 등과 같은 주제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교사와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 연구소는 교사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알 수 없는 미지의 나라'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이자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 문화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미륵상* 수상

Q 독일통일 현장에 있었던 한국인, 우리도 언젠간 서로 얼싸안고 울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독일통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국인으로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1989년 11월 10일 아침 일찍 제가 공부하던 괴팅겐이라는 작은 대학도시에서 동독 시민들이 작은 자동차를 타고 몰밀 듯이 밀려왔고, 연로하신 노인들이 길에 나와 서로 부둥켜안고 우시던 장면입니다. 독일인들은 공개 석상에서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날은 바나나상자를 들고 나와서 동독인들에게 선물을 하던 서독인들과 그것을 받아든 동독인들 모두 눈물을 펄펄 흘렸습니다. 그 옆에 서서 구경하던 한국인 유학생들 또한 영영 울었지요. 그때의 감동적인 기억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도 독일통일과 한국통일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감동적인 순간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으니까요.

Q 우리 하나의 민족,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에 '장벽'을 만들지 않는 일



▲ 평화통일 한국 전통문 조성 및 제막식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해요. 독일의 경험을 보자면 냉전의 긴장관계가 최고에 달하고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에도 동서독인들은 서로를 민족에서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분단은 국가체제의 문제였을 뿐 민족적 관점에서 서로를 배제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있었고, 통일 이후 통합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독일통일의 주역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면서 한국이 통일되려면 무엇보다 '장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저도 우리 마음 속에 장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Q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세대의 노력이 통일로 이어진다

분단시기 독일의 대학에서 공부한 저는 청년세대가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려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980년대에 서독의 대학생이었던 청년세대에서 독일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정치의식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니에요. 녹색운동 반전반핵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대부분의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주역들이 당시 독일의 청년세대였으니까요. 그들은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어요. 제가 너무 독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1989년 11월 9일까지만 해도 동독보다는 프랑스나 스페인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던 서독의 청년세대가 통일 이후 통합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묵묵히 감당해냈어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다시 분리하자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고요. 따라서 한국의 청년세대 역시 지금 당장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초청 워크숍'(2016년 1월 26일)



▲ 이은정 교수와 함께 워크숍에 동행한 연구진들

남한사회에 탈북민 정착하려면 '이주자' 아닌 '동네주민'으로 받아들여야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를 모시고 베를린의 외국인담당관과 함께 좌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과정에서 독일 전문가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탈북민을 다문화 이주자와 동일하게 간주해 완전한 이민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려면 한동네에 사는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혼자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변화된 상황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제가 1980년대에 떠난 우리 사회의 기억을 미화시켜 갖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는 제도나 지원보다는 그들이 우리 '동네'에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기자회견 / 사진, 안희숙(북유럽협의회 베를린지회장), 채동하(독일 사진작가)〉

* 한독협회는 1920년 독일에 망명한 뒤 30년간 독일에 살면서 동서문화의 교량 역할을 한 이미륵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독한협회와 공동으로 <이미륵상>을 제정, 2년마다 한독 문화교류 증진에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해 오고 있다. 이은정 교수는 2013년 제8회 이미륵상을 수상했다.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평화예술제’ 참가 후기

지난해 광복70주년 기념 ‘평화예술제’ 공연에 나섰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예능계 학생들. 학교 측의 제의로 ‘그냥 공연’을 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강한 통일의 염원과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남북한 주민 모두가 오랜 시절 즐겨 부르던 애창곡을 모티브로 공연을 선보이면서 남북한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한 민족이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3월 통일토크 참가자



유은지(연극원 연기과 무용원 창작과 03학번)

하반기 평화예술제에 학생들과 함께 배우로 참여. 한예중 졸업 후 실험연극 전문 극단에 소속돼 배우로 활동하다 현재는 관객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다.

김모은(연극원 연기과 대학원생)

평화예술제 일부 공연에 연출로 참여. 전문 창작집단에서 공연활동을 하다 지인의 유작 연출을 계기로 방향을 전환.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고.



유진호(전통예술원 연희과 11학번)

중요무형문화재3호 권원태 줄타기명인으로부터 사사 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줄타기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훈련생을 포함해서 전국 12명에 불과한 줄타기 예능인 중 1명.

김가빈(연극원 연기과 12학번)

뮤지컬에서 스타트로 전업해 문근영, 엄정화 등 여배우들의 스타트 배역을 했다. ‘얼짱 프로레슬러’, ‘넌버벌 공연 ‘점프’ 멤버로도 활약했지만 좀 더 깊게 연기를 배우고자 29세에 한예중 학생이 됐다.



1차 평화예술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아시아 신진 예술가들과 한예중의 젊은 예술가 100명이 작년 8월 휴전선 서북단에서 동북단을 따라 강화 평화진망대, 고성 통일진망대, 철원 노동당사 등 3개 지역에서 평화예술제를 펼쳤다.

2차 평화예술제 남과 북이 과거에 불렀고, 지금도 애창하고 있는 곡(동요, 민요, 대중가요 등) 100곡을 선정, 한예중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0일간 강원 고성군에서 '겨레가 함께 부르는 노래 통일바람·시작' 행사를 개최했다.

🇧🇷 '그냥 공연'을 하러 갔는데 '통일'과 만났어요!

진호 : 저는 작년 8월에 열린 1차 평화예술제에 참가했어요. 휴전선 서북단에서 동북단을 따라 강화, 고성, 철원에서 열린 공연이었는데 마지막날 철원군 노동당사 앞에서 열린 '평화기원제'에서 남북의 만남을 묘사한 줄타기 퍼포먼스를 했죠.

은지, 모은 : 우리 '겨레가 함께 부르는 노래 100곡'을 고성과 속초에서 한예중 재학·졸업생, 실향민,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과 함께 부르는 2차 평화예술제에 참가했어요. 남북한 애창곡은 '반달'이나 '고향의 봄'과 같은 동요에서부터 '밀양아리랑' 같은 민요, '눈물 젖은 두만강' 같은 대중가요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들이에요. 저희 팀은 그중에서 고성지역 학생들과 동요를 함께 불렀고, 북한 아이들도 아는 전래동화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로 공연도 했어요.



기번 : 저는 공연팀이 아니라 스태프로 참가했어요. 실향민분들을 안내해 자리로 모시는 일을 맡았는데 사이드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보니 엄청 우시더라고요. 특히 노래공연을 하거나 관현악 연주가 나올 때 막 우셨어요. 개막식 때 안내해드렸던 몇몇 어르신들은 폐막식 때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는 말처럼 살갑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은지 : 아 우리가 아는 노래를 북한에서도 부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몽클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놀랐거든요. 곡명을 보니 '풍당풍당'이란 노래도 있고, '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 가시고'로 시작하는 '맘맘' 노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북한 아이들도 알고 있는 줄 몰랐죠. 인근 초등학교 측에 부탁해서 학생들을 즉석으로 섭외했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고무줄놀이를 하는 정겨운 장면을 연출한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우리는 하나의 민족' 공연 통해 느꼈어요!

진호 : 공연 중 당혹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어요. 통일 관련 홀로그램이 상영되고 그 앞에서 제가 줄을 타면서 남북이 하나로 이어지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었는데, 홀로그램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조명이 저를 안 비춰주는 거예요. 저녁 공연이라 조명이 없으면 줄이 안보여 위험하거든요. 마이크는 안 차고 올라갔지, 음악은 계속 흘러가지. 나중에 조명이 켜져서 건너긴 했는데 아찔했어요. 그래도 관객이 많이 오셨고 되게 좋아해주셔서 의미가 있었어요.



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모은 : 가장 부드러우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문화인 것 같아요. 청년세대는 물론이고 어린 친구들까지 '우리 하나였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작업을 해나간다면 북한을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 역시 분단이 오래 이어지면서 트라우마들이 엄청 잠재돼 있는데 자꾸 꺼내서 나누고 즐거워하며 해소해야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것에 기여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가 되래요!

가빈 : 그런데, 북한에도 줄타기가 있지 않나요? 줄타기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이기도 하니까 통일이 되면 전통연희 전공자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진호 : 북한 줄타기 공연은 동영상으로만 봤어요. 저희 과에서 우스갯소리로 '통일되면 전통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해요.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고된 훈련을 받으며 기술을 마스터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가 하는 남사당 줄타기랑 북한식 줄타기 기술이 합쳐진다면 전통문화도 더 풍부해지고 그 힘도 더 강해질 거란 생각이 해요. 저는 현재 친구들과 국악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다니고 있는데 목표는 해외진출이에요. 한국적인 문화를 종합적으로 해외에 소개시켜주는 팀 같은 거죠.

가빈 : 저도 사실 국제무대에 진출한 경험이 있어요.(웃음) 스텐트 일을 하면서 프로레슬링을 배웠는데 선수제의를 받고 국제대회에도 나갔어요. 한일전을 했을 땐 난리도 아니었죠. '스타킹'프로그램에도 몇 번 나왔고요. '이러다 정말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프로레슬러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닐까'란 생각에 과감하게 그만두고 뒤늦게 한예종에 입학했고 올해 졸업해서 연극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연극을 하며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은지 :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다 같이 목청 높여서 노래를 불렀다는 게 좋았고, 그래서 더 힘을 많이 낼 수 있었어요. 실향민분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강하시겠지만,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이건 통일과 관련된 노래야'라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노래 북한 아이들도 부르는 노래야,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같이 부르면 참 좋겠다고 말 해주면 금방 알 거예요.'

가빈 : 폐막식 때 평양예술단과 한예종의 한국무용 전공 학생들이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했는데, 쉽게 금방 안무를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도 하나고 전통 무용의 뿌리도 같으니 금방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호 : 사실 저는 '통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수님의 권유를 받고 참가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첫날 강화 통일전망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바로 앞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 땅이 있고 망원경으로 보니 발일하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보였어요.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이 북녘 땅까지 들리게 하고 싶었지만 들리지 않았겠죠, 아 마. 뭔가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생각에 안타까웠어요.

가빈 :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울거든요. 그런 이산가족들도 이전 많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런 공연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바람이 이



모은 : '모든 창조적 자기표현이 목표하는 바는 인간의 마음에 가 닿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감성 깊은 곳까지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공연 배우니까요. 저 역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만든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닿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요.



은지 : 학교 다닐 때는 큰 극장에서 공연을 해서 스펙을 쌓고 유명해지는 게 목표였지만 사실 큰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면 그 조명 때문에 관객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시작하고부터 객석이 무대와 가까우니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무대에 서는 일이 더 행복해졌어요. 북한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춘향이 심청이 팔쥬가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창작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북한 아이들도 춘향전 심청전은 알 거 같아요. 북한 어린이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해요. 평소 통일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란 생각을 했는데, 평화예술제를 다녀와서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돼요. 남과 북은 한 민족이라는 공통성이 있으니까 노래로, 공연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단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글.사진 / 기자회견, 신재환 공연전문 사진작가>



‘일주일을 아주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있어.’ 내 친구의 말이다. ‘어떻게?’ 이 질문에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로또를 사면 돼. 그것도 월요일 첫 시간에.’ 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이런 ‘재미’가 있을까?

■ 남한의 ‘주택복권’과 유사한 ‘인민복권’

북한에도 남한처럼 다양한진 않지만 복권이 있다. 6.25전쟁 중인 1951년에는 군수물자 조달과 재원확보를 위해 조국보위위원회 이름으로 된 ‘조국보위복권’을 발행했었다. 북한에 남한과 같은 개념의 복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1년 11월이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흥성하게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대건설과 통일거리 건설에 보탬을 주자’는 명분으로 발행된 이른바 ‘인민복권’이 그것이다.

남한의 ‘주택복권’과 유사한 이 복권의 액면가는 북한 돈으로 50원이며 1천만 장을 발행했다. 당시 북한 일반근로자 평균 월급이 80원 안팎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고액복권이다. 현재 남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200만 원으로 보면 로또 한 장을 100만 원 넘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과 같다. 당첨금은 1등이 1만 원(2천 장), 2등은 5천 원(4천 장), 3등 1천 원(2천 장), 4등 500원(200만 장), 5등 100원(200만 장) 등이다. 1등에 당첨될 경우 구입금액의 200백 배, 10년분의 월급을 한 번에 받는 셈이다. 총금액으로는 남한의 로또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북한 월급 기준으로는 그야말로 LOTTO(로또, 행운)이다.



▲ 북한의 복권, '인민생활공채'

■ TV 생방송으로 추첨 중계, 당첨금 지급 지연 '말쌍'

복권은 처음에 식당, 상점, 역전, 주요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판매됐다. 각종 구매 안내문과 포스터가 걸렸고, 유선방송으로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도 전개됐다. 그러나 판매실적이 저조해지자 각 공장, 기업소, 인민반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으로 판매됐다.

첫 추첨은 1992년 3월 25일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인민복권 전국추첨회' 주관 아래 TV 생중계로 진행됐고, '평양신문'을 비롯한 각 지역 신문에 당첨자 명단을 공개했다. 당첨금은 같은 해 4월부터 각 지역 중앙은행지점과 저금소에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당첨금 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점차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말썬이 빚어졌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은 복권 당첨금 지급 문제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진정하기까지 했다. 사실 당시 복권을 발행한 이유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희 자금을 흡수해 각종 건설에서 발생하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당국이 당첨금 지급을 달가워했을 리 없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북한은 복권 발행 직후인 1992년 7월 15일 전격적으로 화폐교환조치(제3차 화폐개혁)를 단행해 국가재정부족을 전국적 범위에서 강제적으로 해결한다.

■ '인민생활공채' 발행 초기 고액 구매자에게 표창 수여도

북한에는 '체육복권'도 있다. 주로 전국단위 체전인 '백두산상 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체육행사나 외국축구단 초청 등 특별한 행사를 계기로 발행한다. 한 때 액면가로 북한돈 5원, 10원 두 종류가 있었다. 복권은 경기장 주변 매점들에서 판매되는데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추첨은 경기가 끝난 뒤 진행하며, 보통 복권당첨자에게는 돈 대신 상품으로 컬러 TV, 냉장고, 자전거 등을 준다. 남한의 경품추첨권과 유사하다. 추첨방식은 투명함 안에 탁구공만 한 크기의 공을 손으로 꼬집어내거나, 원통형의 통을 돌려가며 공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당첨자는 추첨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 1등은 1명, 2등은 2~3명, 3등은 7~8명이다. 컬러 TV는 1등 당첨자에게, 냉장고는 2등, 자전거는 3등에게 차례로 주어지는데 단돈 5원, 10원으로 장마당에서 1만5천 원(당시 기준) 넘게 거래되던 컬러 TV를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횡재'이다.



적 울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3년에 복권과 공채의 성격이 혼합된 '인민생활공채'도 발행 했다.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로 10년 만기이며 액면가는 500원, 1천 원, 5천 원 3종류이다.

이 공채에 복권적 성격을 가미해 더 큰 흥미를 유발시켰다. 즉, 이자 없이 정기적인 추첨을 통해 당첨금(+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당첨상환금은 7등급으로 나누었으며, 1등 당첨 시 액면가의 50 배를 받도록 했다. 즉 5천 원짜리 1등이면 당첨금 25만 원에 원금 5천 원을 더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당시 판매 개시 이틀째에 하루 동안 수십억 원어치가 팔리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홍보했다. 해외동포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판매액을 높이기 위해 북한은 각 해외공관, 주재원들을 동원해 판매실

'인민생활공채'는 여러모로 '인민복권'이나 '체육복권'처럼 로또성격은 아니었다. 당첨액상으로도 그렇고 또 차후 북한당국은 이 공채를 '애국 헌납'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초기에 많이 구매한 사람에게는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한 애국적 소행'으로 평가했고, 100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애국표창장'과 국가수훈도 수여했으며, 신흥부자들에게는 자가용차 구입권한도 부여했다. 그러나 공채판매가 저조해지자 월급에서 강제로 떼는 식으로 조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 북한원화 화폐가치 하락으로 당첨금 실속 크지 않아

북한에서 자금조달은 '추첨제 저금'으로도 한다. 이자가 없고 대신 분기별로 일정 예금자를 추첨해 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변형된 복권'이다. 아마 가장 오래된 북한식 자금조달 방식일 것이다. 추첨 때마다 보통 중앙은행 구역지점 기준으로 1등 1명, 2등 2명, 3등 120명 정도 나온다. 가끔 중앙TV로 생중계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남한처럼 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찾을 수 없다.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민반장이 정기적으로 가정집 문을 두드리면서 독려하는 형태로 당국이 적금을 강제한다. 때론 자기도 모르게 들어놓은 '추첨제 저금'이 당첨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금이든, 당첨금이든 모두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북한원화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설사 그 그림에서 떡을 꺼낸다 해도 별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인민생활공채 추첨 모습

<글,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사진, 연합뉴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산과 들에 진달래가 가득 피어날 것이다.

진달래는 북한 사람들에게 '설렘'과 '고됨'이라는 상반된 느낌을 준다. 포근한 봄의 전령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고된 농사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꽃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2014년 남한에 와서 두 번째 봄을 맞는 서른 살 혜영 씨(가명, 무산출신)는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되어 힘찬 새출발을 시작했다. 비록 "중3 때부터 수포자(수능포기자)였지만 대학에 왔으니 씨씨(CC, 캠퍼스 커플)를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첫날부터 당황하긴 했지만, 혜영 씨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남한사람들과 어우러지며 동화되어가고 있었다.

“난 생활언저, 친구들이 배 그려주고 웃어요”

중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고 '직행'으로 남한으로 온 혜영 씨. 북한에서 '또로로하게(똑똑하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지만,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낯설어 실수투성이였다는 그녀는 스스로를 '생활언저(매사에 서투르기만 한 사람을 뜻하는 북한말)'라고 불렀다. 생활 속에서 실수를 연발해 친구들이 '배 그려주고(배를 쥐고)' 웃는다는 것.

은행에서 현금인출기를 처음 혼자서 사용해보던 날, 기계음이 시키는 대로 통장을 넣고 인출 금액을 누른 다음 비밀번호까지 다 입력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돈이 나오지 않았다.

“북한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고 손 놓고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거 다 험잡(사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혜영 씨는 당장 2층 영업점으로 달려갔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혜영 씨는 처음에 왜 현금을 찾지 못했을까? 바로 맨 마지막 과정인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가만히 기계를 지켜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은행 이용기 더 보기)**

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친척집에 가느라 경기도 좌석버스를 탔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마이크에 대고 '15번 좌석 손님, 카드 찍으세요'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남한 버스기사 아저씨는 방송도 부나 보다(하나 보다)'는 생각만 했을 뿐 영문 모른 채 앉아 있던 혜영 씨.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북한에서는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거든요. 그래서 버스기사님이 방송 불(할) 때도 저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민망해서 결국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가르치는 직업 아는데 선생님이라뇨?

혜영 씨가 또 하나 낯선 게 있었으니 바로 '김혜영 님' '김혜영 선생님' 하는 호칭이다. 북한에서는 학교나 교화소(교도소)에서만 선생님이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님'이라는 존경어(존칭)는 평백성(일반 주민)에게 안 쓴다는 게 혜영 씨의 말이다.

"김혜영 선생님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놀리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한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도 선생님이 라는 말을 쓰고, '님'자를 꼭 붙이더라고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라며 매장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동안 저도 열결 에 꾸벅 인사하며 다니기도 했어요."



2014년에 남한 사회에 막 나와서 아는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갔던 혜영 씨는 동생이 잠시 나간 사이 간호사가 '김혜영 님, 김혜영 님'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니까 이상했지만 주눅주눅 접수대 앞으로 다가간 혜영 씨. 간호사가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혜영 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헛바닥에서 '오로로 오로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 예? 반복해서 질문하니깐 '정신이 나쁘지 않냐(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냐)'고 생각할까 봐 창피했어요."

억울한 마음에 속이 상한 혜영 씨는 저 멀리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서 큰소리로 동생을 불렀다. 그랬더니 또다시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혜영씨에게 쏠렸다.

"북한에서는 집 앞마당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소리쳐 부르거든요.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소리를 너무 안 지르는 것 같아요.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마수스럽다고(창피하다고) 배 꼬러주고 웃더라고요."

세일한다면서 왜 얼짱 고깃집과 같아?

때로는 이런 오해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다. 영화 티켓을 구매한 뒤에 좌석마다 지정된 번호가 있는 줄 모르고 아무 빈자리에나 앉았던 것. "갑자기 누군가가 자리 주인이라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따졌죠. 우리도 돈 냈는데 왜 일어나라고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표를 보자고 하시면서 자리를 찾아 데리고 가서 앉혀 주셨어요. 망신스럽기도 했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었다. 고깃집에서 세일을 한다고 하기에 30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고기를 샀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더라는 것. "할인판매를 한다고 계속 광고를 하기에 완전 싸게 파는가보다 싶었죠. 그런데 고기를 사서 집에 가다 보니 다른 가게에서도 그 가격에 그냥 파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따졌어요. 세일도 안 하면서 거짓말 친다고요."

오랜 시간 줄을 서는 것도 익숙하진 않다고 했다. "고향에선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니까 줄 잘 서는 사람보다 잘 끼어들어서 사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남한에서는 매번 줄을 서야 해서 답답했다"는 것. 혜영 씨는 "쌀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내가 당장 먹을 게 충분해야 누굴 도와줄 여유도 있고 줄을 서서 기다릴 여유가 있지, 다 없어져 버릴까 봐 조마조마한데 어떻게 마냥 줄만 서고 있냐"며 겸연쩍어했다. 하지만 혜영 씨는 이제 남한 사회에 왔으니 남한식 공중도덕은 철저히 잘 지키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글. 기자희>

나 살던 고향은

풍산개가 유명한 무산, 철광석도 제일!

혜영 씨에게 고향 자랑을 해달랬더니 고향인 무산에는 정(精)이 많단다. 두만강에서 물을 길어다 등짐으로 나르고 강변에 앉아서 빨래를 하더라도, 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비포장도로를 걸어오면 옷에서 먼지가 쏟아질 정도라지만 '오다가다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던 정감이 있었다'며 아련한 기억을 떠올렸다.

무산 특산물로는 풍산개가 유명하다고 했다.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데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며, 한 때는 개를 넘겨주고 흑백 TV를 받아오기도 했다는 것. 풍산개를 높게 사는 이유는 용맹하고 사나워 '개의 기상이 북한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청진 장에 내다 파는 물건 중에는 무산 오이와 토마토, 옥수수 등을 중개상들이 최고로 쳐준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무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철광석이다.

“무산은 없을 무(無), 뫼 산(山) 자를 써서 산 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산이 많고 돌이 많으니 철광이 유명하죠. 당 지금 1호에 무산광산이 속해 있고 중국으로도 꽤 수출해요.”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국론결집·국민단합 위한 청년통일사업 만들어갈 것”

‘2016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개최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이 올 한해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청년 통일사업들을 계획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열린 행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한 청년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났다.

“청년위원들의 역량과 열정으로 통일 불씨 키워가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월 16~17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청년분과위원장과 청년위원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유호열 수석부회장은 기초강연을 통해 정책회의 당일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 내용을 소개하며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강화해 북핵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닦기 위한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위원회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북핵규탄 1인 릴레이에 전국 및 해외지역협의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펼친 결과 많은 언론과 관계기관에 그 의지가 알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통일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안을 만들어내고, 청년들의 역량과 열정으로 이를 실천해나가자고 말했다.

배정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민주평통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남남갈등의 해소, 국론결집, 국민단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사업들을 개발하고 젊은 세대의 패기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면서 전국에 통일의 불씨를 더욱 크게 만들고 통일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 유호열 수석부회장

▲ 배정호 사무처장





‘통일준비 한마음 청년 통일문화 축제’ 개최 논의



▲ 이명중 연구소장

특강시간 이명중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은 ‘최근 북한 내부정세와 김정은 정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명중 소장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문화가 많이 전파돼 있는 등 북한의 변화는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일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간다면 통일 의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평통 청년조직이 통일 준비에 중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촌블루스 출신 가수 김상우 씨와 소프라노 원지혜 씨의 공연 후에는 2016년도 청년 기획사업인 ‘통일준비 한마음 청년 통일문화 축제’의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청년세대의 실천 의지를 전국에 확산해나갈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 가수 김상우



▲ 소프라노 원지혜

분임토의

이튿날 회의는 사무처장과의 통일대화로 일정을 시작했다. 배정호 사무처장은 통일대화에서 최근의 북핵 정세와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등을 분석하고, 통일실현을 위한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해 청년 자문위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편, 이번 정책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북핵 위기 극복과 통일실천을 위한 청년 자문위원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바로알기와 젊은 세대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매진함으로써 선진통일 강국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 청년 자문위원 결의문 채택 발표



참가소감

“평화통일! 청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김태광 대전지역회의 청년위원장 :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처럼 전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일 활동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뜻을 모으고 분임토의에서 의견을 도출한 것도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주요 청년사업 외에 각 지역에서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사업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김화정 경기 고양시 청년위원장 : 핵심협 이후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통일의 길이 멀어져가고 있구나' 느꼈는데 청년위원장들과 소통하고 강의를 들으니 이럴 때일수록 청년위원회가 젊은 세대들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생활 속의 통일영원운동을 펼치면 통일이 더 빨리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수 서울 강남구 청년위원장(사회) : 이번 정책회의를 통해 최근 남북정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통일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지역별 분임토의시간에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와 실행방법을 모색했으니 향후 보다 적극적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주요 도시서 북한도발 관련 '국론결집' 강연회 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위원장 유호열, 사무처장 배정호)는 2월 15~2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10개 도시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 국론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북한의 도발, 국민통합으로 극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아울러 통일문제 전문가인 유호열 수석부위원장과 배정호 사무처장이 각각 5개 도시에서 직접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이에 앞선 2월 8일, 민주평통은 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발표,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

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국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 개최 간부 자문위원 회의 통해 국론결집의 장 마련



▲ 민주평통 홍보대사 위촉
(왼쪽부터 유호열 수석부의장, 가수 배일호, 성악가 강민성,
배정호 사무처장)



▲ 토크콘서트 (왼쪽부터 배정호 사무처장, 김태우 건양대학교수, 남성욱 고려대학교수,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주평통은 2월 25~26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국내 시도 및 시군구 협의회장 등 간부자문위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간부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단합, 통일공감대 확산, 국론결집 등을 위한 활동방향들을 모색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시대, 민주평통이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했으며, 배정호 사무처장이 주관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아울러 산악인 엄홍길, 배우 최수종, 가수 예일리, 가수 배일호, 성악가 강민성, 성악가 김동규 씨를 ‘민주평통 평화통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북한 도발 규탄을 위한 결의문’을 전국 부의장 협의회장 전체 명의로 채택했다.

두바이에서 ‘2016 청년컨퍼런스’ 열려 해외 청년위원 통일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위해



민주평통은 해외 청년위원들의 자문건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1~3일(목) 두바이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2016 청년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청년이 만들어 가는 통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일본, 중국, 아세안, 미주, 유럽지역 등 해외

43 개협의회에서 100여 명의 청년위원들이 참가했다. 행사는 유호열 수석부시장의 강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중앙대 조운영 교수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 박사가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지역부시장과의 대화’ 등 청년 자문위원과 함께 소통·교류하는 기회가 많았으며 분임토의 역시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3월 4일과 7일에는 카타르와 영국에서 각각 ‘통일강연회’가 개최됐다.

민주평통 1/4분기 분과위원회 개최



민주평통은 1/4분기 분과위원회를 2월 23~26일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3일 외교안보분과, 청년분과, 통일정책분과, 종교복지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25일에는 문화예술체육분과, 통일교육홍보분과, 인권법제분과위원회가, 26일에는 여성-탈북민지원분과,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 등이 각각 개최됐다.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 등을 계기로 급변하는 통일환경을 분석하고 분야별로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2016년도 1분기 정책건의는 3월 하순에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종합 건의될 예정이다.

통일문화 확산



▲ 대구 수성구협의회

▲ 경기 이천시협의회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2월 1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포럼’을 실시했으며,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15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 통일홍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 경북 포항시협의회



▲ 광주 광산구협의회

경북 포항시협의회(회장 김정치)는 1월 24일 15개 종교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폐기 국민기도회 국민대회'를 열었으며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27일 '평화통일기원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광주 광산구협의회(회장 김승언)는 2월 4일 북핵 실험과 관련, 통일관련 단체들과 함께 송정역 광장에서 평화통일염원 8천만 서명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강원 춘천시협의회



▼ 경기 김포시협의회



▲ 충북 충주시협의회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이든균)는 1월 19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멘토-멘티 신년간담회를 가졌으며,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는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김포경찰서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들에게 떡국 떡을 전달했다.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22일 '북한이탈주민 통일 간담회'를 개최한 뒤 탈북민 가정 130가구에 쌀을 전달했다.



▲ 광주 남구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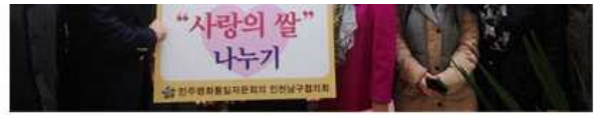


▲ 인천 서구협의회

광주 남구협의회(회장 서병연)는 22일 북한이탈주민 학생들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회의실에서 '통일한마음 장학금전달식'을 열었으며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25일 인천세일고등학교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동아리 '새터울' 학생 및 지도교사, 탈북민 및 자녀 등과 함께 제3차 '통일준비 한마음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회)는 26일 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인천 남구협의회

▼ 경기 고양시협의회



▲ 부산 진구협의회

▼ 울산 북구협의회



▼ 경북 영주시협의회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우신구)는 28일 민주평통 의료봉사단과 함께 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 후 안경과 구급약품 등을 전달했으며, 부산 진구협의회(회장 백옥자)는 여성·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주관으로 29일 진구경찰서에서 '2016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울산 북구협의회(회장 이종호)는 30일 대항기관장과 시민, 관내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통일토크쇼, 함께하는 통일대화' 행사를 열었으며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는 31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을 개최해 명절 음식을 나누고 전통놀이 등을 즐겼다.



▲ 전남 영광군협의회

▼ 경남 통영시협의회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2월 1일 관내 탈북여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뒤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같은 날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모경책)는 북한이탈주민 63세대에 온누리상품권 등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경기 여주시협의회



▲ 부산 동래구협의회

▼ 대전 대덕구협의회



2일에는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헌)가 설 명절을 맞이해 관



내 북한이탈주민을 초청, 간담회 및 나눔행사를 실시했으며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와 대전 대덕구협의회(회장 강덕구),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 등도 각각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전남 구례군협의회 ▶



▼ 강원 횡성군협의회



▲ 전북 부안군협의회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2일 지난해 전국우수협의회 대통령표창 시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해 새해 만복을 기원했으며,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도 이날 관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찾아 격려품을 전달했다.



▲ 강원 동해시협의회



▼ 광주 북구협의회



▲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경북 예천군협의회

3일에도 설 맞이 나눔 행사들이 전국에서 이어졌다.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설 명절 북한이탈주민 나눔행사'를 실시했으며 광주 북구협의회(회장 김선남)도 구청에서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설 맞이 떡나눔' 행사를 열었다.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이경용)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양춘열)는 이날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과일과 식료품 등을 나눠줬으며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는 탈북민 및 다문화가정 등을 초청해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간담회'를 가졌다.

▼ 경기 시흥시협의회



▲ 전북 완주군협의회

▼ 전남 화순군협의회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시흥에 새로 입주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북한이탈주민과 온정나누기' 행사를 열었으며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완철)와 전남 화순군협의회(회장 홍남희)도 각각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방문해 상품권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 부산 영도구협의회



▼ 충북지역회의



▲ 대전 동구협의회

부산 영도구협의회(회장 김용민)는 3일 구청에서 대행기관장, 경찰서 관계자, 탈북민들과 함께 '설 맞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상품 전달식'을 열었으며,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2~4일 관내 북한이탈주민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가래떡을 전달했다.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남진근)는 4일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그리고 탈북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설명절 나눔 행사'를 대전하나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했다.

▼ 충북 옥천군협의회



대구 서구협의회 ▶



▼ 경기 가평군협의회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군상)도 이날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및 설맞이 나눔행사'를 열었으며,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최중석)는 멘토 자문위원들과 함께 탈북민 가정을 방문해 선물과 장학금 등을 전달했다. 또한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5일 관내 북한이탈주민들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만두 등 명절음식과 상품권을 전달했다.

▼ 경기 과천시협의회



부산 서구협의회 ▶



▲ 대전 서구협의회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0일 탈북청소년들을 초대해 남한가정의 명절문화를 함께 체험한 뒤 박물관과 서울랜드 등을 방문했으며,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유채형)는 12일 이옥희 여성분과위원장,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방문해 위로금과 출산용품을 전달했다.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도 17일 관내 탈북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용품을 나눠줬다.





◀ 서울 금천구협의회 충북 청주시협의회 ▶

▲ 대구 남구협의회

서울 금천구협의회(박준식 회장)는 1월 27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장애우가정, 탈북민, 다문화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도 이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실시했으며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는 30일 여성분과위원회 주관으로 대행기관장과 북한이탈주민, 남구경찰서 직원 및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 경기 안산시협의회



▼ 전북 익산시협의회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30일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조춘자) 주관으로 안산터미널과 안산시민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을 펼쳤으며,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도 2월 1일 익산 북부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였다.



▲ 서울 강남구협의회



▼ 전북 김제시협의회



▲ 강원 속초시협의회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정현)는 2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행기관장 등과 함께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기원 및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으며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는 인근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도 이날 청호동 실향민 마을 소외계층 가정에 연탄 배달봉사를 실시했다.



▼ 전북 김제시협의회



▼ 강원 정선군협의회



▲ 강원 평창군협의회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영해)는 3일 관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떡나누기 행사'를 실시했고,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원용)는 '사랑의 떡 나누기' 행사를 통해 명절음식을 소외계층 가정에 배달했으며, 강원 정선군협의회(심용중 회장)는 인근 부대를 방문해 과일 등을 전달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은 이날 관내 시장(동부시장, 한내시장, 중앙시장, 목화5일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재래시장 어려움들 함께 나누어요)'을 실시했다.

▼ 충남 보령시협의회



▼ 대전 중구협의회



▲ 경남 합천군협의회 서울 중랑구협의회 ▶



▲ 강원 홍천군협의회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4일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고, 같은 날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재일합도의용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위로했다.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도 이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장애인가정 가정을 대상으로 '설날떡국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으며,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홍천읍 시가지에서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했다.

▼ 전남 나주시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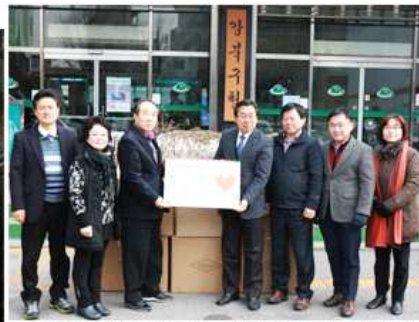


▲ 경북 칠곡군협의회

▼ 부산 금정구협의회



전남 나주시협의회(회장 진창연)는 5일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과 함께 탈북민에게 필요한 제수용품을 구매해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도 이날 새로 단장한 왜관전통시장과 약목시장을 찾아 설 장을 보며 전통시장애용 캠페인을 벌였다.



◀ 부산 사상구협의회 서울 강북구협의회 ▶

6일에는 부산 금정구협의회(회장 김재두)가 경로당을 방문해 설맞이 떡국봉사를 실시했으며,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10일 신년 사업계획을 논의한 뒤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을 초대해 떡국을 대접하고 율놀이잔치를 열었다.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는 16일 구청 광장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고,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는 17일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어르신 관련 단체에 떡국을 전달했으며,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이경용)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양춘열)도 이날 서귀포매일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해외 지역 통일활동



캐나다 밴쿠버협의회(회장 서병길)는 1월 27일 다운타운 밴쿠버 미술관 앞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피켓 시위를 펼쳤다. 밴쿠버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는 무모하고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북핵 문제를 조속히,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 LA협의회(회장 임태량)는 2016년도 사회복지분과 첫 번째 사업으로 2월 6일 '탈북민과 함께하는 설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한 뒤 미국에 와 정착하기까지의 사연을 듣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LA협의회는 탈북민들이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과 직업교육 등을 원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 부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행사는 우리의 소원 합창으로 막을 내렸으며 행사 후에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물을 제공했다.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2월 6일 문화회관에서 탈북동포 초청 설맞이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시카고 내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가족들을 비롯, 실향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시카고협의회가 지난해 7K 달리기 등 행사를 통해 모금한 기금으로 탈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일반 탈북동포들에게는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생필품과 기념품을 선물로 증정했다. 또한 성악과 풍물 등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협의회에서 마련한 명절음식을 나누며 율놀이 등을 통해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 미국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통일을 가로막는 후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일관되게 무시하고 2월 7일 오전 10시 45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한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핵도끼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통일을 위협하는 핵도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핵도끼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통일을 위협하는 핵도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핵도끼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통일을 위협하는 핵도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 북유럽협의회

2016년 2월 8일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남미서부협의회
파라과이 지회

▲ 남미서부협의회

미국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회장 권석대)는 1월 30일 한 언론사 주최로 LA그리피스 팍에서 개최된 '제2회 거북이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으며, 대회장에 북핵 실험 관련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북유럽협의회(회장 최월아)는 2월 16일 베를린에 있는 주독일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최월아 협의회장과 독일의 4개 분회 분회장 및 자문위원들, 한인 동포 단체들, 독일인 인권활동가 등은 이날 현수막과 피켓을 펼쳐 보이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유럽협의회 베를린지회는 재독한인단체들과 함께 지난 1월 15일에도 주독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했다. 이에 앞선 2월 10일, 남미서부협의회(회장 이학락)도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관련 내용을 언론사와 웹사이트에 게재해 북한의 도발을 교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규탄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했으며 파라과이지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2월 6일 창립 제 36주년 기념식과 설날을 맞은 이스트베이 노인회관을 방문해 회원들을 위로하고 민주평통의 사업과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정승덕 회장은 교민들 곁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공부하는 평통이 될 것을 약속하며, 통일의식과 통일공감대 형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뒤 후원금을 기탁했다.



떠났던 봄이 돌아오던 날 그 섬, 보길도

호기롭게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멀고 따뜻한 섬을 눈으로 더듬어보다, 보길도에서 멈췄다. 이 땅의 남쪽 끝에서도 바닷길을 1시간여 더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 이른 봄이 찾아온다는 이 섬이라면 고단한 삶에 대해 투덜거려도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섬은 단순히 섬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섬은 일상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멀리서 떠나 온 장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저 성실히 살아가야 할 오늘의 집이기도 했다. 이 봄을 찾아 길을 나섰다, 봄이 돌아오듯 떠났던 이 역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섬, 보길도에서 만난 바로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본다.



어설픈 여행자에게 건네는 순박한 인사

더 이상 섬이라 부르기에 어색해진 완도에서 출발한 여행선이 느긋한 움직임으로 노화도에 닿자, 섬과 물을 오가던 사람과 차량들이 바삐 짐을 챙겨 길을 떠난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겨진 여행자들 역시 주홍빛 보길대교를 따라 노화도에서 보길도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셔틀 버스에 몸을 싣는다. 터덜터덜, 멀리 보이는 바다만 아니었다면 영락없이 시골동네인 작은 마을을 지나 드디어, 보길도다. 사실 섬에 대한 몇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삶의 터전이 척박한 만큼 낯선 이방인의 방문을 경계할 것이란 편견도 그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물이 좋기로 유명한 섬 주민들은 낯선 얼굴에도 곧잘 인사를 건네고, 투박한 몸짓으로 어설픈 여행자의 고단한 여행길을 동정하며 섬에 대한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 공룡알 해변으로 향하는 한적한 시골길

▲ 모래가 곱기로 유명한 종리은모래해변



더도 덜도 말고 딱 지금, '세연정'

동네 마실(산책)의 전라도 사투리) 나온 어르신이 '당채 이 먼 데 까지 뭐 따시 왔는지 모르겠다'고 꿀꿀 혀를 차며 손끝으로 가르쳐 준 방향을 따라 씩씩하게 걸어 도착한 곳은 보길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윤선도 원림이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장가였던 고산 윤선도는 물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일컬어 다섯 친구라 부르며 무려 13년간 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대표작인 '어부사시사'를 지었다. 시와 풍류를 즐겼던 문인답게 운치 있는 풍광마다 흔적을 남겼는데, 가장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 원림의 세연정이다.



▲ 보길윤선도원림 입구

깊은 산에서 흘러내려 온 물이 고인 연못 가운데에 세워진 정자, 세연정의 절경을 느끼고 싶다면 정자에 오롯이 앉아보길 권한다. 학의 날개마냥 뽀얀 창호문을 접어 올린 정자 안에서 내다본 이 계절의 풍경은 더도 덜도 말고 딱 봄이다.



▲ 풍광이 빼어난 세연정

“압개에게 안개 걷고 뒤편의 비취다
밤물은 거의 더고 난물이 미려 온다
강춘 온갖 고지 면 빗치 더욱 도타”



섬이 남긴 혹은 섬에 남겨진 흔적, '예송리 해변' '글썸바위'

고산만큼이나 이 아담한 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우암 송시열이다. 조선후기 정치계와 사상계를 호령했던 우암 선생은 83세의 나이에 제주로 유배를 가던 중 이곳에 우연찮게 들려 오연절구 시를 바위에 남겼고, 후에 제자가 그 글을 바위에 새겨 지금의 '글썸바위'가 됐다. '글썸바위'를 찾아 섬의 동쪽을 따라 달리다보면 고운 모래사장이 미인의 눈썹처럼 곱게 휘어진 통리해수욕장과 종리해수욕장, 예송리 해변 등을 지나게 된다. 섬이라지만 산이 깊고 수원지까지 있어 물이 좋다는 섬에서는 해변 주변으로도 어렵지 않게 잘 뽀은 송림을 만날 수 있다. 우암 선생의 '글썸바위'는 보길도 백도리 바닷가 근처 바위에서 구경할 수 있는데, 오래된 글귀만큼이나 그 앞으로 펼쳐진 탁 트인 남도의 바다풍광 역시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 탁본으로 인해 훼손된 우암 송시열의 글썸바위
 ◀ 글썸바위 앞에서 바라본 남도의 바다



치장하지 않은 낙조와 온전한 아침을 위해, ‘망끝전망대’ ‘보죽산’

자연의 순리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섬마을의 밤은 이를 수밖에 없다. 어물어물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쉬워 지나가는 섬 주민 붙잡고 일출과 낙조로 유명한 곳을 묻자 입이라도 맞춘 듯 보죽산과 망끝전망대를 손꼽는다. 다도해 앞 바다, 날씨만 좋다면 멀리 제주도까지 서로 다른 개성의 섬들이 내려다보이는 망끝전망대에서는 치장하지 않은 낙조를 볼 수 있으며, 흔히 ‘뽕죽산’이라고도 불리는 보죽산의 산등성이에서는 온전한 ‘아침’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전복, 김, 다시마 등의 특산물이 유명한 지역답게 길푸른 하늘 아래, 꼭 그만큼 푸른 물색을 지닌 바다 위에는 어김없이 가두리 양식장이 자리하고 있어, 특별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보통 여행자라면 ‘갯돌’이라고도 불리는 보옥리 근처의 공룡알 해변의 매끈한 자갈 위에 걸터앉아 시간을 보낸 후 보죽산에 오르기 쉬운데, 등산로가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길의 경사도가 높으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보죽산에서 바라본 이른 아침 바다 풍경



문득문득 집이 그리워지는 그 섬

옛 뱃사람들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마파람’이 불 때면 노를 젓지 않고도 제주를 갈 수 있다고 할 만큼 제주와 인접한 보길도는 언뜻 제주의 풍경과 비슷하다. 낮은 돌담과 이르게 터트린 봄꽃의 향연도 그렇고, 무엇보다 떠나온 이들에겐 관광지이지만 살아가는 이들에겐 삶의 터전이란 점이 닮아있다. 솜털 같은 털을 가진, 집 나간 강아지를 잡아달라는 어르신들의 요청에 한참 실랑이를 하고도 변변치 못하다 핀잔을 듣고, 동네 유일의 점빵(‘가계’의 사투리)에서는 계산도 포장도 손님 몫이 당연하다. ‘어디서 왔는지’는 물어봐도 ‘어디로 갈지’는 궁금해하지 않는 섬마을은 문득문득 떠나 온 ‘집’을 떠올리게 한다. 쉬이 다시 찾지 못했기에 다시 오란 말 대신 조심해서 가라는 인사말이 건네는 사람들과 섬을 등지고, 그사이 부쩍 그리워진 ‘나의 집’으로 향한다.



▲ 보옥리의 공룡알해변



그 바다의 풍요, ‘미역국’과 ‘전복해초비빔밥’



섬이라고는 하지만 항구주변으로는 제법 반듯한 모텔이나 숙소도 적지 않



지만, 지역의 특산물로 소박하게 차린 아침밥상을 받고 싶다는 욕심에 일부러 민박집으로 향한다. 미역으로 몽근하게 끓여낸 깊은 맛의 미역국과 동네주민이 직접 말리고 구웠다는 조미김, 멸치젓갈, 이 계절의 해초류로 차려낸 밥상은 그 자체로 바다내음이 물씬 풍긴다. 특색 있는 전복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싱싱한 전복에 해초류를 가득 담아 속속 비벼 먹는 전복해초비빔밥을 추천한다.

<기사/사진. 권혜리>

자고로 몸 까기는 야외가 효과적!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얘는 무슨 여기서 몸을 까래?

그럼 몸 까기 안할 거야?

올 여름에 물놀이 갈 거라며?

하하
다
짜
짜

그... 그..건 수영장이나
그런 거지?

모르는 소리! 자고로
몸 까기는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해야 좋은 거야!

야외에서 하라고?!!

???



* 몸까지(복한말) = 다이어트(남한말)



야들야들한 녹두묵에
쇠고기로
감칠맛 낸

녹두묵채



녹두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묵, 전, 차, 떡, 고물 등 다양한 형태로 먹는다. 민간에서는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며, 해열·해독 작용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녹두에는 류신, 라이신 등의 필수아미노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도 도움을 준다. 남한에서는 청포묵과 함께 계란지단, 돼지고기, 김 등을 섞어 탕평채를 해 먹는데, 북한에서도 이와 비슷한 녹두묵채를 해 먹는다고 한다.

요리재료

요리재료 : 쇠고기 100g, 청포묵 1모, 숙주 1/4봉, 미나리 6줄기, 오이 1/3개, 김 1장,
간장 1큰 술, 설탕 1/2큰 술, 다진 마늘 1작은 술, 참기름·소금·통깨 약간
양념장 재료 : 간장 1큰 술, 설탕 1/2큰 술, 참기름 1/2큰 술



요리방법



1 프라이팬에 쇠고기, 간장 1큰 술, 다진 마늘 1작은 술을 넣고 중불에 볶는다.

2 청포묵은 0.5cm의 두께로 채를 썬 뒤 물에 데친다.



3 미나리는 5cm의 길이로 썬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4 숙주는 머리와 꼬리를 제거하고 5cm의 길이로 썰어 데친다.



5 오이를 5cm의 길이로 얇게 썰어준다.



6 김 역시 5cm의 길이로 얇게 썰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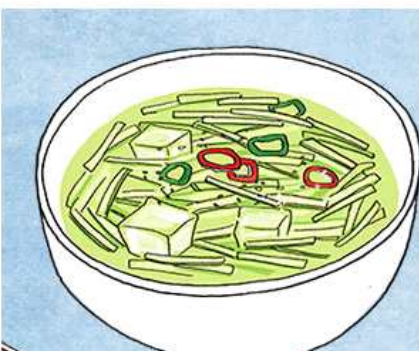


7 접시에 쇠고기, 청포묵, 숙주, 미나리, 오이, 김을 담고 양념장을 붓는다.



8 재료를 잘 섞은 뒤 통깨를 뿌려 장식하면 완성.

<글. 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황해도의 '갈증해소' 음료, 녹두묵물

황해도는 산지가 많은 북한내 타 지역과 달리 평야지대가 넓기로 유명하다. 재령평야와 연백평야가 황해도에 속해 있는데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라 농수산물이 풍부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나 있다.

녹두 생산량 또한 많아 녹두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해 있는데, 특히 이 지방 사람들은 녹두묵을 만들 때 나오는 녹두묵물을 차게 만들어 마시곤 했다. 녹두를 갈아 자루에 넣고 짤 때 나오는 물에 소금을 넣고 끓여 마시며 갈증을 해소했던 것. 또한 이



녹두묵물을 차게 식힌 뒤 오이와 식초를 넣고 냉국을 만들어 상큼한 맛을 즐겼다고 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통일 당선작



2016년엔 평화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2016년 새해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새해가 되면 뭐든 변하리라 갑자기 무언가 달라지리라'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1년 전 지금도, 10년 전 지금도, 현재인 지금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에는 당찬 마음으로 무엇보다 제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삶에 작은 파동을 일으킬만한 좋은 변화를 기대하고 열심히 지내보려 합니다. 어릴 땐 지금 세월쯤이면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 상상하곤 했어요. 2000년대만 되면 세상이 최첨단화되고 우주여행도 떠나며 평화통일도 돼서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리라 상상하며 학교 내 통일화 그리기에 항상 그런 그림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비록 지금 그 꿈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제가 물감으로 곱게 색칠하며 그리던 그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대화의 장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화합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언젠간 평화통일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남북 관계도 늘 반짝반짝 빛나는 봄날이길...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보고 난 후, 엄마와의 여행을 계획하여 작년 처음으로 함께 단둘이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흐드러진 눈꽃에 시선을 빼앗긴 채 그렇게 좋아하시던 엄마를 보면서 엄마도 여자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엄마'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이기적으로만 생각했던 못된 딸이었음을 뉘우치고 돌아왔던 특별하고도 가슴속에 오래 기억될 여행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울타리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2015년처럼 앞으로도 우리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한도 마찬가지로 한 발자국씩 뒤로 내어주면서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며 힘이 되는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소박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 안에서 소통과 공감으로 꽃처럼 방울방울 활짝
피어나는 나날을 기원합니다. 추억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자부하며
서로에게 오롯이 스며들어 사랑을 영그는 우리 가족, 앞으로 함께하는
매일매일! 부디 반짝반짝 빛나는 봄날이길...

할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희망의 2016년 새해가 밝았네요 ^-^ 저희 할아버지는 형제들이 모두 북한에
계시다고 합니다.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할아버지와 함께 이산가족 찾기
행사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늙음하고 근엄하신 할아버지가 분단의 아픔 속에
어렵게 형제분들을 찾아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만나고 싶다고 하시지만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통일이 된다면 할아버지의 꿈을 이뤄줄 수 있겠지요.



희망 가득한 통일이야기를 나누길 바래요

2015년 결혼 6년 만의 첫 임신이라 제 평생 가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 마련으로
이사까지 하고 단란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함을 느꼈어요.
2016년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 모두 밝은 미래가 펼쳐졌으면 해요. 특히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
문제 등으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희망적인 통일이야기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엔 노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길...

작년 한 해는 어느 때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꿈꾸던 새 직업에 도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20대의 마지막을 화려하진 않지만 정직하고 부지런히
보냈다고 생각해요. 2016년 새해에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산가족상봉이 정말 오랜만에 성사되었는데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분단의 슬픔을 가슴 저리게 느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다시는 헤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루빨리 통일되길 기원합니다.



다 함께 통일나무를 심어봐요!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남북한이 통일 된다면 기념식수로
어떤 통일나무(또는 통일꽃)를 심고 싶은가요?

예) 대동강 옆에 개나리를 심고 싶어요.
통일로 봄이 왔음을 봄꽃으로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장소에 어떤 나무(또는 통일꽃)를 심고 싶은 지,
이유를 함께 알려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기간 : 2016.03.05 ~ 2016.03.20
- 응모방법 : 아래에 비밀 댓글로 작성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행복한통일'로 접수
- 당첨자수 : 3명
-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 2만원 권

〈주의사항〉

- 고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파릇파릇한 새봄, 통일 새싹을 찾아보세요

웹진 기사 곳곳에 총 3개의 통일 새싹이 숨어있어요!
통일의 새싹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찾았다' 는 문구가 뜰 거예요.

새싹의 위치를 찾아 아래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새싹을 찾으러 출발해요~



- 응모기간 : 2016.03.05 ~ 2016.03.20
- 응모방법 : 1. 기사 속에서 통일 새싹을 총 3개 찾는다.
2. 통일새싹이 어디에 있는 지 아래에 비밀 댓글로 쓴다.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행복한통일' 로 접수)
- 당첨자수 : 10명
- 시상내역 : 스타벅스 카페라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앱 설치 인증’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010-4154-55**	강*주
2	010-2002-43**	문*윤
3	010-3371-51**	박*진
4	010-3113-28**	선*아
5	010-9566-49**	오*숙
6	010-4924-26**	조*미
7	010-9236-61**	조*경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9211-92**	16	010-4551-30**
2	010-9211-92**	17	010-7773-05**
3	010-2083-44**	18	010-4006-31**
4	010-7450-67**	19	010-6483-66**
5	010-5512-06**	20	010-9327-99**
6	010-9488-64**	21	010-9900-50**
7	010-2737-23**	22	010-7176-68**
8	010-9323-06**	23	010-3333-59**
9	010-5395-32**	24	010-9089-97**
10	010-3475-88**	25	010-7713-79**
11	010-9256-14**	26	010-3475-88**
12	010-3748-89**	27	010-5396-18**
13	010-7121-05**	28	010-5288-93**

14	010-8563-62**	29	010-9318-49**
15	010-5093-15**	30	010-2362-46**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